日오사카 호텔도 '템플스타일'

와쿠 · 시모데라마치 호텔, 관광으로 포교 활성화

일본 전통 '슈쿠보' 모티브
사찰과 유사한 인테리어 및
아침 예불 등으로 인기 UP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템플스테이형 호텔 전경

음식과 쇼핑의 도시 오사카는 일본서 최초 불교사원이 세워진 곳이자 일본 전역에서 두 번째로 사찰이 많은 도시다. 그런데 이 오사카에 오랜 불교 역사를 계승한 '템플스테이형 호텔'이 생겨 화제다.

일본 언론 '라이풀 홈즈 프레스(LIFULL HOME'S PRESS)'는 오사카에 템플스테이형 호텔 '와쿠 · 시모데라마치(和空 · 下寺町, 이하 와쿠호텔)'가 생긴 이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영업중이라고 12월 14일 집중보도 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사찰에는 '슈쿠보(宿坊)'라는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묵는 숙박시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슈쿠보는 평균 1일 숙박 당 1만엔(한화 약 95,000원)이라는 비싼 값에, 절의 엄한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불편한 고급 숙박시설'로 변모됐다.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에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템플스테이형 호텔은 이런 배경 가운데 나왔다. 불교문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슈쿠보와 몸 ·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현대 숙박업의 개념을 혼합한 와쿠호텔이 지난 4월 개업 후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와쿠호텔이 있는 시모데라마치 지구는 한 동네 안에 80여 개의 크고 작은 사찰들이 모인 사찰밀집지역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와쿠호텔 외관은 일본 전통 가옥양식서 모티브를 따 건축됐다. 로비에는 다기와 향로가 놓인 작은 다실이 있으며, 곳곳엔 불화와 사찰 건축을 이용한 오브제들로 인테리어가 돼있다. 이 외에도 전통 이불을 활용한 침대, 다다미가 깔린 객실 등 사찰 내실의 느낌을 주도록 인테리어 돼 있다. 또한 식사는 모두 사찰음식으로 제공되며 호텔의 가운도 승복을 모티브로 만들어 졌다.

호텔서 제공되는 석식을 먹은 후엔 인근 사찰서 스님이 와 사경 · 사불체험을 지도한다. 숙박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 상담이나 법문을 해주기도 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은 좌선체험이 이루어지는데 숙박객이 아니라도 참가비를 내고 체험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아침 예불은 자유참가로 희망하는 사람은 7시에 로비에 모여 함께 근처 사찰로 이동한다. 사찰서 30분간 예불을 모시고 간단한 법문이 진행한다.

와쿠호텔의 총대표 타사시 시노부(田代忍)는 "관광도 포교의 좋은 방법"이라며 "이런 관점서 우리는 특별한 사찰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슈쿠보를 찾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슈쿠보의 활성화와 현대적 신설을 위해 만든 첫 번째 호텔이 이곳이다. 앞으로도 인근 사찰들과 협력해 지역 관광 진흥을 함께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와쿠호텔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호텔 건설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땐 주변 사찰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호텔이 입지한 텐노지구(區)는 일본 최초의 사찰인 천년고찰 텐노지(天王寺)가 위치한 지역. 끊이지 않는 참배자와 관광객을 이용해, 사찰과 출가자를 관광영업상품으로 쓰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호텔 측의 끈기 있는 설득과 설명이 점차 사찰들의 마음을 열었다.

와쿠호텔에 아침예불 장소를 제공하는 아이젠도(愛染堂)의 주지 야마오카 타케아키(山岡武明)스님은 "이 지구가 관광지이긴 하나, 불교신자들에겐 신앙의 중심지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절에 찾아오는 신자들만 보고, 타지인이나 일반 관광객을 직접 접하는 일은 적었다"며 "혼자서 예불을 할 때는 15분 정도로 끝냈지만 와쿠호텔의 숙박객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자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불기를 정성껏 닦고, 향이나 공양을 올리는 것도 한층 더 신경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야마오카 스님은 아침예불 후 감동 받았다는 숙박객들에 영향을 받아 이른 새벽의 예불 시간을 아침으로 조정하고, 새롭게 범패나 법고를 사용하는 등 구성을 새로이 했다고 한다. 또한 아침 예불에서 나오는 질문이나 법문을 생각하다 보니 실제 수행과 포교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와쿠호텔 숙박객의 3할은 외국인이다. 대부분 중국과 대만의 단체관광객이지만 영미권의 개인 여행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총대표 타시로 씨는 "외국인들은 사경용지에 먹이 스며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로비의 다실이나 법복과 비슷한 가운을 입고, 사찰요리를 먹기 위해 젓가락을 드는 것까지, 모두 체험으로 느낀다. 다들 크게 만족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외지인들이 조용한 마을로 몰려들고 점점 경제가 활성화 되자 지역사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7월엔 와쿠호텔 앞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오사카의 다른 관광명소와 연계되는 버스노선이 새롭게 만들어 졌다. 2019년 봄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호류지(法隆寺)와 연계해 2호점이 신설 예정이다. 또한 이를 프로젝트로 만들어 전국 각지에 동일한 컨셉의 호텔이 생겨날 예정이다. 사찰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사찰과 사람들 간의 인연을 묶는 새로운 실험의 등장에 앞으로의 전개를 일본 불교계가 주목 중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크리스마스 말고, 보디 데이!

〈bodhi day〉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12월이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12월에 대표적인 불교 명절은 없을까? 미국 언론 '더 스탠다드'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외에도 여러 종교 명절이 있다"며 불교의 '보디 데이'를 12월 26일 소개했다.

보디 데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불교의 휴일이다. 한국에서는 기념하지 않지만 일본과 중국 등에서는 대부분 기념식을 한다. 종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기념하며,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노래한다.

'보디 데이'는 대부분의 국가서 12월 8일에 기념한다. '더 스탠다드'는 "이 날은 부처님이 여러 해 동안 극도의 금욕행을 실천하고, 보리수 나무아래 앉아 명상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크리스마스에 필적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진형 기자


사진출처=월드데이츠

2차대전 평화 발원 콘크리트 범종 '환지본처'

전쟁 당시 콘크리트 범종 발견
공출된 범종 대신 종각 보호용
시민들 요구에 사찰로 돌아와…
평화 발원 발원문도 새겨져 있어

2차 세계대전 중에 공출된 범종을 대신하여 종각에 걸렸으나 분실됐던 일본 콘크리트 범종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18일 일본 아이치 현 '츄니치 신문(中日新聞)'은 전쟁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콘크리트 범종 이야기를 12월 18일 보도했다. 일본 사찰선 종의 무게로 종각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그런데 전쟁 당시 종이 공출되면서, 종각의 보호를 위해 조성된 것이 콘크리트로 된 범종 모형이다.

아이치(愛知)현 이누야마(犬山)시 소재 간뉴지(願入寺)는 1683년에 주조된 종을 가지고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금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출됐다. 범종이 공출되고 종루의 균형이 흔들려 붕괴의 위험성이 올라가자 당시 주지였던 故토쿠류(德龍) 스님은 높이 3m, 직경 80cm로 콘크리트 범종을 조성해 매달았다. 현 주지 치다츠(千龍) 스님은 "콘크리트 범종은 여러 절에 있었지만 전쟁 후에 대부분 폐기해 버렸다. 가끔 남아있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콘크리트 범종 이미지 사진.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새로운 종이 걸리고 그간에 걸려있던 콘크리트 범종은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절 근처 강가의 사당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 마을 소식지에 이야기가 실리고 종을 다시 간뉴지에 돌려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절에서 종을 수습하여 다시 경내에 안치했다.

현재 종각에 달린 종은, 징병되어 만주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고 돌아온 전대 토쿠류 스님이 1949년에 조성한 것이다. 새로 조성된 종에는 '제 2차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올바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붙여 종을 병기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본래 무리한 전쟁이었기에 일본은 패배했다. 바라건데 평화의 음성이 시방에 울려 모든 생명들에게 흐르기를' 이라는 평화 발원문이 새겨져 있다.

치다츠 스님은 "시대를 말해주는 종 두 개가 모였다. 인연이 중한 만큼 소중히 여기려 한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불교 영화다"

라이언스로어 12월 20일 주장

글로벌 흥행 수익 16억 달러(한화 1조 7189억 원)로 전망되는(12월 28일 기준)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가 불교를 테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로어'는 12월 20일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가 중도, 업 등의 불교적 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언스로어'는 이 영화가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어두운 면이 강해져 빛을 가려 군대는 균형을 잃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악한 기운을 파괴코자 한단 것이다.

하지만 "명(明)이나 암(暗)어떤 것도 분리 · 제외하지 않고 통합된 하나의 존재로 보기도 했다"며 "선과 악을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언스로어'는 이는 불교 중도의 관점이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을 윤회에 빗대기도 했다.

또한 주인공이 과거 행동에서 오는 현재 부정적인 상황의 결과를 견디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는 것 등에서 불교의 업과 인과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한다. '라이언스로어'는 "이 영화의 자아는 실체가 없고, 존재의 본성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과보를 받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것. 이는 업의 기본관념과 상통하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마스터 요다는 불교의 선사를 떠올리게 하며 욕망에 집착한 아나킨은 결국 어둠의 군주가 된다고 덧붙인다. '라이언스로어'는 "스타워즈 시리즈는 항상 불교를 다뤘다"면서 "하지만 이번 '라스트 제다이' 편이 가장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불교의 의미를 찾아가며 영화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진형 기자

直指寺 祖室 暎虛堂 綠園大宗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감사의 말씀

저희 第8教區 本寺 直指寺 祖室이신 暎虛堂 綠園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불기 2561(2017)년 12월 27일 永訣 茶毘式을 大韓佛教 曹溪宗 宗團葬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遠路에 저희 祖室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신 종정 예하, 원로의원, 총무원장 스님 등 宗團의 元老 大德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을 비롯한 四部大衆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큰 스님의 遺志를 받들어 더욱 修行 精進하겠습니다.

불기 2561년 12월 27일

49재 추모일정 〈매주 금요일〉

초재	17년 12월 29일
2재	18년 01월 05일
3재	18년 01월 12일
4재	18년 01월 19일
5재	18년 01월 26일
6재	18년 02월 02일
7재	18년 02월 09일

■ 문의 및 연락처
직지사 종무소 ☎ 054-429-1700 Fax 054-436-3174
직지사 재무실 ☎ 054-429-1713~14 Fax 054-433-8600

大韓佛教曹溪宗 第8教區 門徒 一同 合掌